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유비쿼스(264450)

## 통신장비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윤선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04.23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비쿼스(264450)

네트워크 장비 개발업체, 네트워크 시장 호재에 따른 매출 성장세 지속

## 기업정보(2021/12/20 기준)

대표자	이상근
설립일자	2017년 03월 01일
상장일자	2017년 03월 31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주요제품	인터넷 통신네트워크 장비

## 시세정보(2022/1/4 기준)

현재가	23,55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2,413억 원
발행주식수	10,245,706주
52주 최고가	27,000원
52주 최저가	19,600원
외국인지분율	3.79%
주요주주	
(주)유비쿼스홀딩스	37.96%

## ■ 인터넷 통신네트워크 장비 사업 영위 중

유비쿼스(이하 동사)는 2017년 3월 (주)유비쿼스홀딩스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동월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현재 인터넷 통신네트워크 장비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가 포함된 기업집단 (주)유비쿼스홀딩스는 동사를 비롯하여 총 5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대표이사 이상근은 현재 (주)유비쿼스홀딩스, (주)넥사이트, (주)바이랩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은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1,104.6억 원으로 최근 3개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 중 내수 비중이 9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성장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기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폭증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트래픽의 폭증은 5G 시장 확대를 가속화시켰고, 이에 따른 전달망 네트워크 장비산업 시장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비대면 산업 육성과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고, 더불어 2022년까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커버리지를 전국 50%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여 네트워크 장비 관련 시장은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 5G 및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장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진행 중

동사는 정부의 10기가 인터넷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0기가 이더넷 스위치, 10G-EPON(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 ONT(Optical Network Terminal) 단말 등을 개발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더불어, 광 선로 장애로 인한 통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5G용 광 선로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여 5G 및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952.7	25.0	166.9	17.5	148.8	15.6	20.1	14.7	39.7	1,453	7,819	13.1	2.4
2019	1,038.8	9.0	122.2	11.8	111.4	10.7	13.2	9.3	44.9	1,087	8,607	13.1	1.7
2020	1,104.6	6.3	189.6	17.2	161.0	14.6	16.9	11.9	39.2	1,571	9,965	15.8	2.5

## 기업경쟁력

### 액세스망 장비의 Full line-up 확보

- GE-PON, G-PON 시스템을 구성하는 OLT, ONU, ONT 등을 개발 및 판매
- LAN 서비스에 사용되는 L2, L3 스위치 등을 개발 및 판매

### 기술진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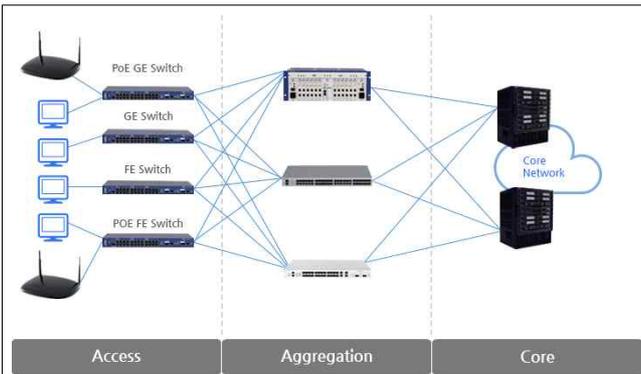
- 정부정책 및 통신사업 니즈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대용량(10기가)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장비 개발
  - 10기가 이더넷 스위치 상용화
  - 10G-EPON 상용화
- 신규 통신 서비스인 5G 인프라에 포함되는 5G용 광선로 감시 시스템 개발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주요 핵심기술

- 대용량 스위치 개발로 외산장비가 점유하고 있는 백본망 장비 시장 진입
- 유무선 통합의 시대에 맞춘 모바일 백홀/프론트홀 개발 기술 보유
- 케이블 증설 및 교체 없이 망 고도화가 가능한 동축 기반 G.hn 2.0 솔루션 개발 기술 보유

### 동사의 주요제품



## 시장경쟁력

### 국내 전달망 네트워크 장비 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연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8년	9,799억 원	연평균 11.7% ▲
2023(E)	1조 7,048억 원	

- 전달망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5G 기반 네트워크 시장 수요 증대와 함께 성장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 폭증은 네트워크 장비 산업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5G 인프라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10기가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여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음.

### 네트워크 장비 시장 내 인지도 확보

- 동사는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를 통해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FTTH 장비는 국내 시장에서 동사가 약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ISO14001(환경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환경 법규를 준수함.
- 동사의 임직원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독거노인을 위해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에 매년 참여함.
- 동사는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 임직원의 역량을 향상하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용하여 임직원의 생활 및 복무 안정을 지원하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이사회 내부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회계 관리업무를 수행함.
- 동사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2020년 무상증자를 시행하고 배당성향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동사는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으로서 공시의무를 준수함.

\*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 I. 기업현황

###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진행 중

동사는 네트워크 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5G 및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에 발맞춰 관련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동사가 속한 전달망 네트워크 장비 산업 시장은 정부의 정책 및 코로나19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로 인하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화를 이끌어온 동사의 매출도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기업개요 및 주요주주

동사는 2017년 3월 1일에 (주)유비쿼스홀딩스로부터 네트워크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7년 3월 31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현재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더넷 스위치, FTTH(Fiber To The Home) 솔루션 등 액세스망 장비의 Full line-up을 갖추고 있다.

동사가 포함된 기업집단 (주)유비쿼스홀딩스는 동사를 비롯하여 (주)넥사이트, (주)바이랩, (주)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Ubiquoss USA, LLC, 총 5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대표이사 이상근은 2018년 3월 27일 동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현재 (주)유비쿼스홀딩스, (주)넥사이트, (주)바이랩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유비쿼스홀딩스(이상근 47.17% 지분 보유)로 동사 지분의 37.96%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인이 총 41.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주)유비쿼스홀딩스 기업집단

회사명	사업 부문	사업 내용
(주)유비쿼스홀딩스	지주 사업	종속회사 관리, 경영컨설팅, 임대수익, 신규투자
(주)유비쿼스	네트워크 사업	네트워크 장비 개발,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
(주)넥사이트	컴퓨터 사업	산업용 보드 개발, 제조 및 판매
(주)바이랩	의료기기 사업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주)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신기술금융 사업	기관투자자 업무 영위 (투자조합 결성 및 사모펀드 운영 등)
Ubiquoss USA, LLC	Technical Support & Sales	미국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제품 판매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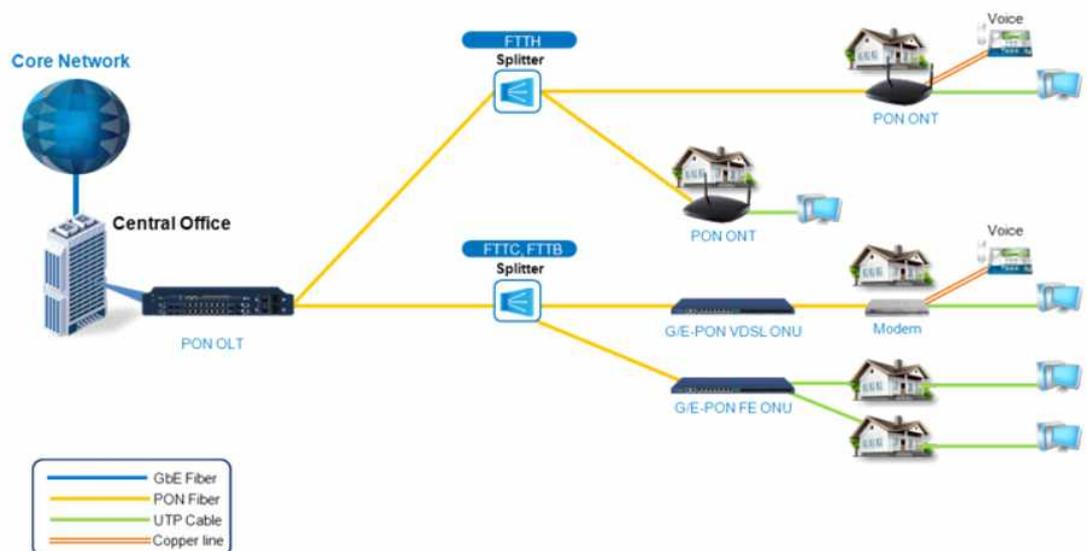
■ 주요 사업 현황

동사는 인터넷 통신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FTTH 서비스 관련 제품 및 LAN(Local Area Network) 서비스에 주로 쓰이는 스위치 등이 있다.

FTTH는 광케이블 가입자망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 설비 방식의 한 종류이다. 기존의 방식은 외부의 경우 광케이블로 연결되고 각 가정의 경우 동축 케이블 등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었으나, FTTH는 광케이블로 가정까지 연결함으로써 기존 방식 대비 빠르고 안정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PON(Passive Optical Network, 수동 광통신망)은 광케이블망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현재 사용되는 기가인터넷 또는 FTTH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PON은 통신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한 대의 OLT(Optical Line Terminal)와 가입자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다수의 ONU(Optical Network Unit) 또는 ONT(Optical Network Terminal)로 구성된다. 한편, 국내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에 사용되는 PON 기술은 E-PON과 G-PON이 있다. E-PON은 Ethernet PON의 약어로, 이더넷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방식이다. 성능은 대칭형 구조로 상/하향 각각 최대 1.25Gbps이지만, 실질적으로 1Gbps 서비스를 제공하여 GE-PON 또는 1G-EPON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에서 채택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G-PON은 Gigabit-capable PON의 약어로, 성능은 하향 최대 2.5Gbps, 상향 최대 1.25Gbps로 비대칭이다. 다만, 실제 가정에서는 1Gbps로 제공되며, 국내에서는 SK브로드밴드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사는 GE-PON, G-PON 시스템을 구성하는 OLT, ONU, ONT 등을 개발하여 국내외 통신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동사의 OLT는 설치와 유지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1G와 10G 모듈의 선택 사용이 가능하여 사용환경과 현재 수요에 맞는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동사의 10G-EPON OLT는 기존의 대용량 OLT 대비 기능과 용량이 진보된 GE-PON 플랫폼으로, TM 전용 칩셋을 장착하여 정교한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1] FTTH 솔루션 모식도



\*출처: 동사 홈페이지

LAN 서비스에 쓰이는 스위치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충돌없이 여러 장비를 연결시켜주는 장비이다. 스위치는 통신 종류에 따라 L2, L3 스위치 등으로 구분된다. L2 스위치는 MAC 주소를 기반으로 하고, L3 스위치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한다. MAC 주소는 제조업체가 컴퓨터 등의 제품을 생산할 때 하드웨어 내부에 심어놓은 고유의 주소이며, IP 주소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노드(Node, 네트워크의 연결 포인트)간 통신을 하기 위해 임의로 주어진 네트워크상 주소이다. 동사는 현재 L2, L3 스위치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2010년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백본용 대용량 스위치 개발에 성공하여 상용화하였다. 동사가 개발한 대용량 백본 스위치는 각 지역 통신국사 백본망에 설치돼 5만 회선 이상의 통신가입자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이후 LG유플러스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2017년에 100G 스위치를 개발하였다. 100G 스위치는 5G 무선 기지국과 유선 네트워크간 데이터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장비로, 한 번에 3.6Tb의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GB 영화 한 편 분량의 트래픽을 0.16초만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 속도를 탑재하고 있다.

[그림 2] L2, L3 스위치 사용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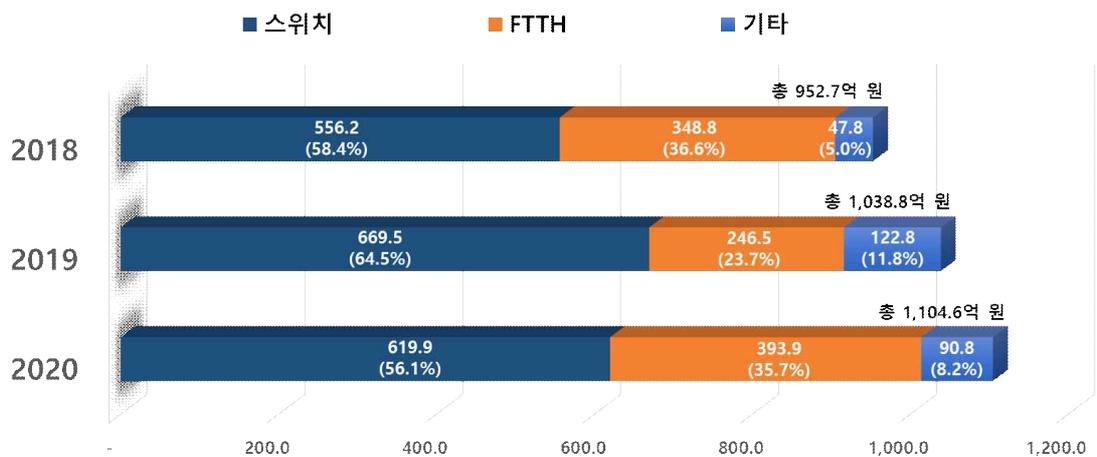
\*출처: 동사 홈페이지

## ■ 매출 현황

동사의 제품은 주로 KT,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가입자망을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2020년 기준 KT 및 LG유플러스 향 동사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72.3%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20.12)에 의하면,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952.7억 원, 2019년 1,038.8억 원, 2020년 1,104.6억 원으로 3개년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비중은 스위치 관련 제품이 56.1%, FTTH 관련 제품이 35.7%, 기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이 8.2%로 스위치 관련 제품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사의 이러한 매출의 증가 추세는 LG유플러스와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LG유플러스는 동사와 2018년 11월 약 942억 원 규모의 국산 스위치 및 E-PON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5월 2,345억 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그림 3] 동사의 최근 3개년간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3개년간 매출의 내수 비중은 2018년 88.9%, 2019년 93.8%, 2020년 92.9%로 국내 중심의 매출이 지속되고 있다. 동사는 현재 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 지사 설립 및 해외 영업 라인 구축 등 해외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동사는 전체 원재료 구매금액 중 수입자재의 비중이 약 41%를 차지하고 있어, 환율의 변동에 따라 원재료 조달 비용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4] 동사의 최근 3개년간 매출 비중

(단위: %, K-IFRS 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 ■ 전달망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동향 및 시장규모 전망

동사는 인터넷 데이터 전송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전달망 네트워크 장비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달망 네트워크 장비는 광대역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장비를 일컫는다. 전달망 네트워크 장비는 데이터 통신을 담당하는 전송장비와 트래픽에 따른 경로 설정 및 장치 전향을 담당하는 교환장비로 구분된다. 전송장비는 데이터 트래픽을 전기 및 광학적 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로, WDA(Wireless Display Adapter), ROADM(Re-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 MSPP(Multi-Service

Provisional Platform), 캐리어 이더넷(Carrier Ethernet) 장비 등이 있으며, 교환장비는 동종 또는 이종 네트워크 내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전송 경로를 설정해주는 장비로, 라우터, 스위치,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용 장비 등이 있다. 동사는 이 중 스위치 장비를 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스위치 장비는 트래픽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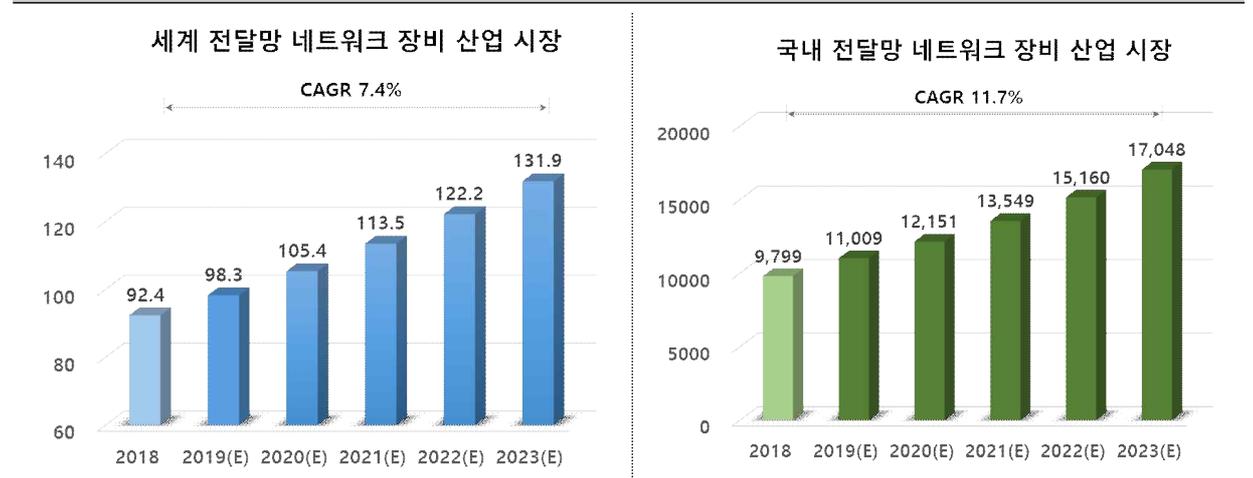
현재 전달망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5G 기반 네트워크 시장 수요 증대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5G 이동통신은 4G 대비 20배 빠른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로 사람, 사물, 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인당 최대 20Gbps급 전송속도, 1ms 이하의 지연시간 단축 기술 등을 통해 수많은 주변 디바이스와 소통하는 차세대 이동통신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기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폭증은 네트워크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트래픽의 폭증은 통신사업자의 5G 투자 증대를 가속화시켰고, 전달망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비대면 산업 육성과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5G 관련 예산에 2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18년부터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촉진을 위해 10기가 인터넷 국산 장비 개발, 응용서비스 발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공모과제를 기획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유선망의 세대교체를 가속화시켰으며, 정부는 10기가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커버리지를 전국의 50%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 관련 시장은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Mordor Intelligence의 조사자료(2020)에 따르면, 세계 전달망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2018년 92.4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연평균 7.4%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2023년 131.9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Marketsandmarkets의 조사자료(2020)에 따른 국내 시장은 2018년 9,799억 원에서 2023년 1조 7,048억 원으로 연평균 11.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국내외 전달망 네트워크 장비 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억 원)



\*출처: Mordor Intelligence(2020), Marketsandmarkets(2020), NICE디앤비 재구성

## ■ 경쟁사 분석

동사는 인터넷 데이터 전송장비 사업을 영위 중이며, 현재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는 (주)머큐리, (주)다산네트웍스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이다.

(주)머큐리는 2000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통신장비, 네트워크 시스템, 광케이블의 생산 및 유통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단말 장비(AP, ONT, Gateway 등), 광통신(광섬유, 광케이블 등), 컨버전스(교환장비, 스위치, 위성장비 등)이 있다. (주)머큐리는 최근 단말 장비에 KT의 IoT 기술과 야놀자클라우드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객실관리 시스템 Y FLUX GRMS를 접목한 클라우드형 스마트 객실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광주 H1 호텔에 공급했다. 이 시스템은 체크인 시 발급받는 Y FLUX 패스로 (주)머큐리의 단말 장비를 통한 엘리베이터 제어, 객실 도어락 잠금해제, 냉·난방 원격 제어 등 객실 장치 제어가 가능하다. 한편, (주)머큐리는 2020년 K-IFRS 별도기준 1,178.1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2.9%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다.

(주)다산네트웍스는 인터넷 통신장비 개발과 공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DZS Inc.(미국)와 다산네트웍솔루션즈 등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부문은 네트워크 사업, 자동차 자동화 솔루션 사업, 특수 열교환기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은 네트워크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주)다산네트웍스의 종속회사 DZS가 캐나다 통신사업자 텔러스(Telus)의 네트워크 통합관리 솔루션 공급사로 선정되었다. 텔러스는 1990년 공영 통신사로 시작해 현재는 민영화된 캐나다의 통신사로, 캐나다 전역에 유선인터넷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주)다산네트웍스는 2020년 K-IFRS 연결기준 4,049.8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판매관리비 부담의 확대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를 기록하였다.

[표 2] 주요 경쟁사 비교

기업명	업체 현황	2020년 매출액(억 원)
(주)머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0년 설립</li> <li>통신장비, 네트워크 시스템, 광케이블 생산 및 유통</li> <li>KT, 야놀자와 협업을 통한 스마트 객실관리 시스템 개발</li> </ul>	1,178.1 (전년대비 6.1%▲)
(주)다산네트웍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3년 설립</li> <li>네트워크 사업, 자동차 자동화 솔루션 사업, 특수 열교환기 사업</li> <li>종속회사 DZS의 성장에 따른 해외 매출 상승</li> </ul>	4,049.8 (전년대비 8.10%▼)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년 설립</li> <li>이더넷 스위치, FTTH 솔루션 등 액세스망 장비 개발</li> <li>FTTH를 기반으로 10Gbps를 서비스할 수 있는 10G-EPON ONT 단말 개발</li> </ul>	1,104.6 (전년대비 6.3%▲)

\*출처: 각사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 10기가 인터넷 활성화 정책에 따라 관련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 진행

동사는 현재 정부의 10기가 인터넷 활성화 정책에 따라 10기가 인터넷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2017년 LG유플러스와 협업을 통해 홈 10기가 인터넷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홈 10기가 인터넷은 일반 가정에서 1GB 용량의 영상 콘텐츠를 0.8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증강현실(VR), 가상현실(AR), 8K UHD, 홀로그램과 같은 차세대 미디어의 안정적인 전달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의 실현을 위해 동사는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다. 동사가 개발한 10기가 인터넷 스위치는 기가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960G급 고집선 스위치로, 국내 사업자 테스트를 통과하여 통신사업자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FTTH를 기반으로 10기가를 서비스할 수 있는 10G-EPON ONT 단말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10기가의 서비스 속도뿐만 아니라 보강된 QoS(Quality of Service, 통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품질을 나타내는 규격)를 제공함으로써, 프리미엄 가입자 서비스와 기업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동사는 5G용 광 선로의 장애 시점 및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광 선로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광 채널과 광 파장별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전송 구간의 광 선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장애 발생 시 선로 이중화를 통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동사의 기술은 5G 및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동사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동사의 SWOT 분석

[그림 6] SWOT 분석



##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사는 인터넷 통신네트워크 장비 제조기업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동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동사는 임직원의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환경 관련 법상의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U+ 동반성장보드(LG유플러스와 그 협력사로 구성된 협의체)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에 매년 동참하고 있다.

동사는 임직원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 직급별 교육, 신규 입사자 교육, 승진자 교육, 사이버 연수원을 통한 온라인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이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하여 임직원의 생활 및 복무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12.1%로, 고용노동부 자료(2021.02)에 따른 동 산업(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인 28.8% 이하이다. 동사의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73.6%로 동 산업 평균인 72.4%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80.6%로 동 산업 평균인 91.4% 이하이다.

[표 3]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성별	직원 수(전체)		평균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181	257,896	3.1	9.3	40,609	69,276
여	25	104,310	2.5	8.5	29,944	50,172
합계	206	362,206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부에 사외이사 3인으로 조직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회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0년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주주의결권 지원제도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표 4]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회계 전문성	최대주주 지분율
사내/사외	특수관계인	소액주주 지분율
사외이사 재직기간	내부통제 제도	3년 이내 배당
내부위원회	감사 지원조직	의결권 지원제도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II. 재무분석

###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 확대 및 비대면 트렌드 등으로 인한 매출 증가

최근 3개년간 매출 성장 폭이 둔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글로벌 경기 개선과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 확대, 비대면 트렌드 지속 등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며 유무선 통신장비 수요 성장으로 인한 매출 성장이 전망된다.

#### ■ 인터넷 통신네트워크 장비(스위치)가 동사의 매출을 견인

동사의 제품은 주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가입자망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매출의 대부분이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주를 통해 발생되고 있으며, 상기 통신사업자들과의 긴밀한 영업적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사업 안정성은 높은 편이다. 한편, 2020년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비중은 스위치 등 56.1%, FTTH 35.7%, 기타(유지보수 및 기타매출 등) 8.2%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스위치 등의 매출이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동사의 2021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산 스위치/EPON 장비 및 10기가 서비스용 장비 단가계약’ 등 총 2건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1,301억 원 규모로 확인되고 있다.

#### ■ 최근 3개년간 매출 성장폭이 둔화 추이를 보였으나,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 추이는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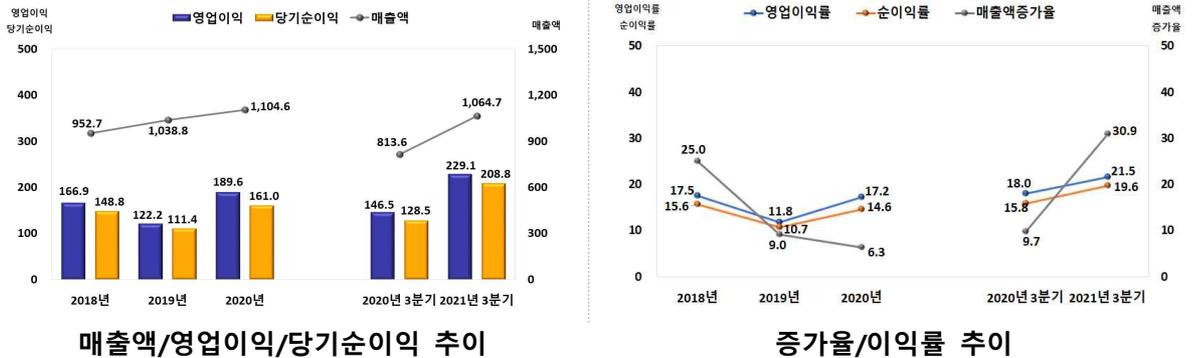
국내 주요 고객사인 LG유플러스와의 거래가 원활한 가운데, 벤더 내 M/S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20년 연간 매출 실적은 1,104.6억 원(+6.3% YoY)을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외형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매출 성장폭은 2018년 25.0%, 2019년 9.0%, 2020년 6.3%를 각각 기록하며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2021년에는 LG유플러스 HFC망(Hybrid Fiber Coax, 광섬유와 동축 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선로망) 10기가 FTTH 조기 전환 및 학교 무선망 사업의 PoE 스위치 납품 매출 증가로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한 1,064.7억 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매출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 ■ 2021년 3분기 전년에 이어 매출 증가를 통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2020년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 등에 힘입어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은 각각 17.2%(+5.4%p YoY), 14.6%(+3.9%p YoY)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수익성이 전년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상기 매출 규모의 확대 및 수익성 개선으로 2020년 동사는 영업이익 189.6억 원(+55.2% YoY), 당기순이익 161.0억 원(+44.5% YoY)을 기록하였다.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1.5%(+3.5%p YoY)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4% 증가한 229.1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매출 신장 등에 따른 판매비 부담 완화 및 원가구조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영업수지 개선 등으로 매출액순이익률 역시 19.6%(+3.8%p YoY)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그림 7]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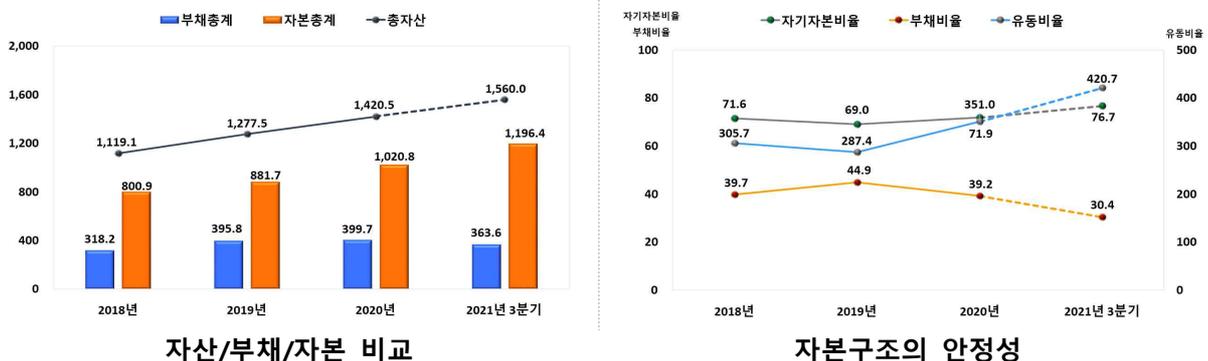
■ 꾸준한 흑자시현 등으로 전반적인 재무안정성 지표 양호한 수준 유지

양호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순이익의 내부유보로 최근 3개년간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39.2%, 자기자본비율 71.9%를 기록하며 전년 말에 이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영업활동창출자금과 보유 현금 일부를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2020년 말 현금성자산 규모는 전년 말 383.2억 원에서 375.0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다만, 유동비율이 351.0%로 양호하고 차입금 규모 역시 총자산의 5.0%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인 바, 단기유동성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21년 9월 말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30.4%, 자기자본비율 76.7%를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에 이어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였다.

[그림 8]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5]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별도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952.7	1,038.8	1,104.6	813.6	1,064.7
매출액증가율(%)	25.0	9.0	6.3	9.7	30.9
영업이익	166.9	122.2	189.6	146.5	229.1
영업이익률(%)	17.5	11.8	17.2	18.0	21.5
순이익	148.8	111.4	161.0	128.5	208.8
순이익률(%)	15.6	10.7	14.6	15.8	19.6
부채총계	318.2	395.8	399.7	300.4	363.6
자본총계	800.9	881.7	1,020.8	988.1	1,196.4
총자산	1,119.1	1,277.5	1,420.5	1,288.5	1,560.0
유동비율(%)	305.7	287.4	351.0	442.3	420.7
부채비율(%)	39.7	44.9	39.2	30.4	30.4
자기자본비율(%)	71.6	69.0	71.9	76.7	76.7
영업현금흐름	157.6	196.3	196.0	76.9	67.1
투자현금흐름	-170.6	-10.8	-135.7	-114.0	-186.2
재무현금흐름	24.4	-43.5	-61.3	-58.5	-43.6
기말 현금	241.6	383.2	375.0	285.8	212.2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 Ⅲ.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전망

#### 2021년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중장기적 성장 기대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으나, 2021년 글로벌 경기 개선과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 확대, 비대면 트렌드 지속 등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며 유무선 통신장비 수요 성장에 힘입어 동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 2021년 인터넷 통신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업황 회복 속 매출 성장 전망

2020년 주요 고객사인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업자로부터의 안정적인 수주활동을 바탕으로 1,104.6억 원(+6.3% YoY)을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외형 성장세가 지속하였고,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 등에 힘입어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은 각각 17.2%, 14.6%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수익성 역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한편, 이익 규모는 영업이익 189.6억 원(+55.2% YoY), 당기순이익 161.0억 원(+44.5% YoY)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21년 주력 제품인 스위치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제품군에서 판매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한 1,064.7억 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더불어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 및 원가구조 개선 등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은 각각 21.5%(+3.5%p YoY), 19.6%(+3.8%p YoY)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통신과 방송의 융합 및 스마트폰, 스마트TV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트래픽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동사가 보유 중인 10G-EPON, 대용량 OLT/ONU/ONT, 기가급 L2/L3 스위치, 테라급 스위치, 5G 백홀/프론트홀 스위치 등은 향후 지속적인 매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외 협력사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해외사업 확대를 통해 해외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 내 네트워크 장비 사업 전 분야의 End to End 솔루션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공급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외 지사 설립 및 해외 영업 라인 구축 등 해외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 학내망 개선 및 스쿨넷 4단계 사업 참여로 매출 증가 기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수업이 증가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학내망 개선을 위해 2021년 3,7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더불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안정된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스쿨넷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스쿨넷 4단계 사업으로 Fire wall, L3, L2, L2 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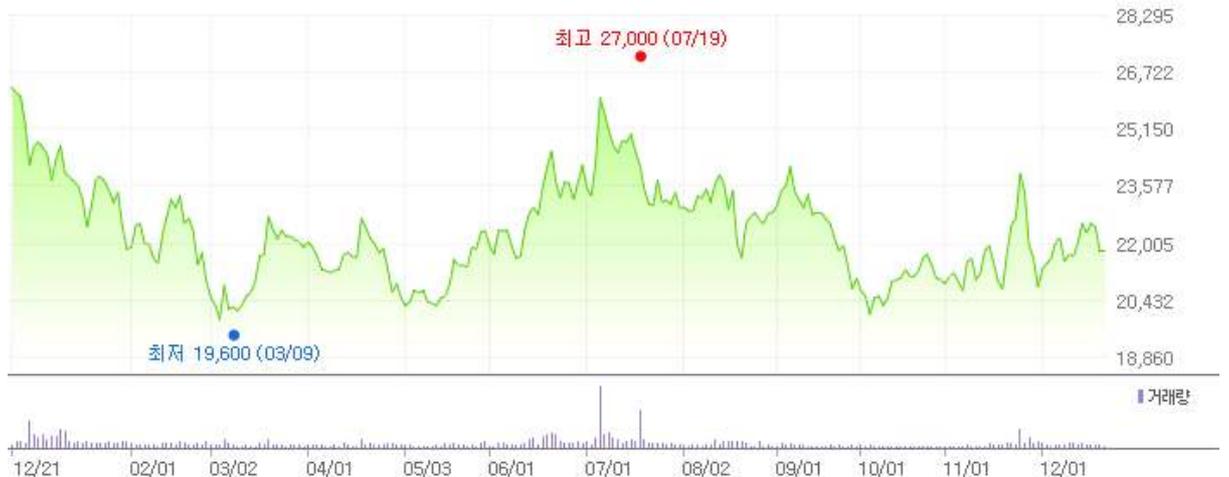
스위치 등을 교체하여 스쿨넷 서비스의 속도를 기존 500Mbps에서 800Mbps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동사는 KT 및 LG유플러스를 통해 L2, L2 보안 스위치 등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사는 앞서 학교 무선망 사업에 PoE 스위치를 납품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스쿨넷 4단계 사업의 참여를 통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9]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1. 12. 20 기준)